

생산성 향상과 소비확대로 불황 이겨내자!

| 동향 |

생산비 이하의 계란가격 형성으로 3월 평년대비 산란계병아리 입식은 감소하였고, 산란성계육 출하물량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산란 성계 사육수수의 증가로 산란 초기 배합사료는 전년동기 대비 11.9% 증가, 산란말기 배합사료는 전년동기 대비 24.6% 증가하여 산란에 가담하는 계군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월 신학기를 맞아 급식수요에 대한 기대로 난가는 상승하였다. 하지만 할인거래의 폭 또한 벌어져 인상에 대한 효과를 반감시켰다. 2015년 4분기 산란계 사육수수는 7,188만수로 이중 6개월 이상 사육수수는 5,336만수로 전체 사육수수의 74.2%가 산란에 가담하고 있다. 산란계 사육수수의 지나친 증가로 공급이 소비를 넘어서고 있어 공급과잉으로 인한 불황은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활절을 앞두고 추가적인 난가 인상을 기대하고는 있으나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데 덮친격으로 산란성계육의 동남아시아(베트남) 수출부진으로 산란도계장의 구매물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산란성계육 출하를 위해서는 2~3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등 산란계농가들의 앞뒤가 팍 막힌 답답한 실정이다. 다행히 지난 28일 AI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고 이로인해 계란의 홍콩수출이 3월 11일자로 재개된다고 하니 가뜰이나 어려운 산란계산업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있다.

| 자료분석 |

지난 2월 산란종계병아리 입식은 68,900수이며 전월(50,000수)대비 37.8%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69,800수)대비 0.2%감소하였으며, 산란실용계 병아리 판매수수는 3,242천수로 전월(3,013천수)대비 9.6%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3,350천수)대비 3.2% 감소하였다. 1월 육추사로 생산량은 31,231톤으로 전월(35,470톤)대비 7.6%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33,801톤)대비 12.0% 감소하였다. 산란사료는 214,649톤으로 전월(225,210톤)대비 4.7%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204,220톤) 대비 5.1% 증가하였다. 1월 산란종계사료는 6,330톤으로 전월(6,189톤)대비 2.3%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7,039톤)대비 10.1% 감소하였다. 한편 1월 산란성계육도축수수는 2,757천수로 전월(3,088천수)대비 10.7%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2,192천수)대비 25.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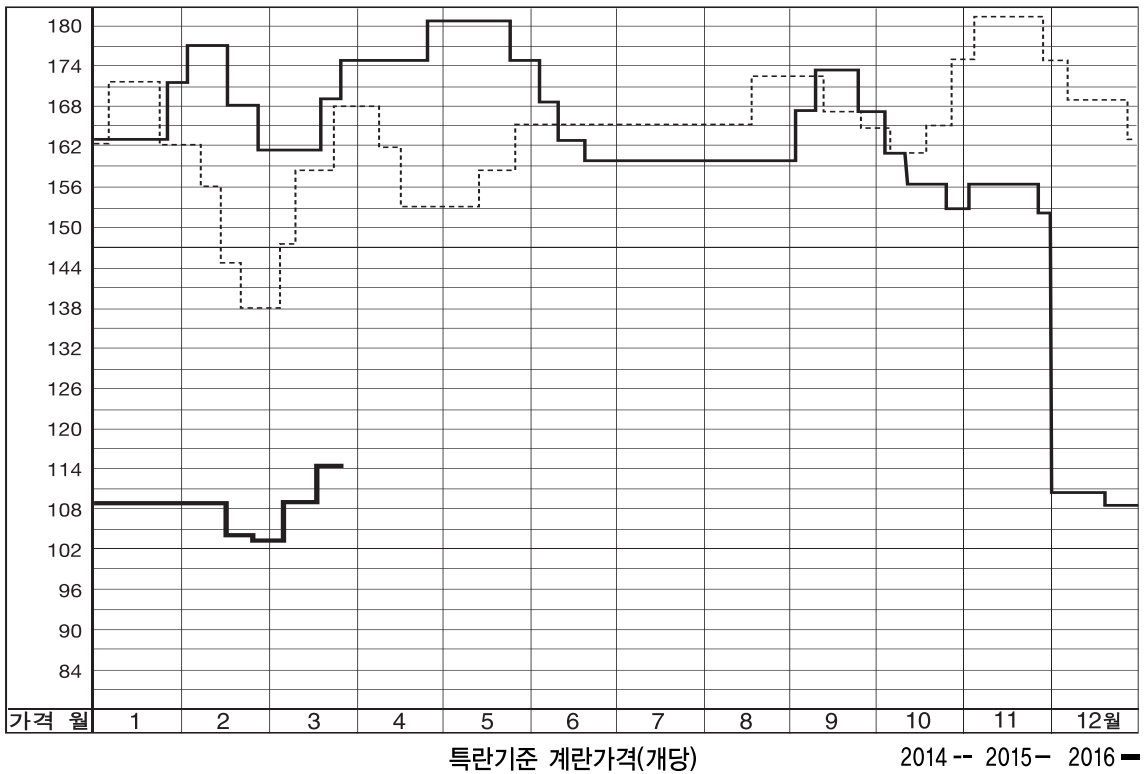
| 전망 |

산지난가는 약보합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월 다행히 학교급식, 부활절, 할인행사 등으로 농장에 재고물량은 모두 소진되었다. 하지만 3월말부터 환우계군이 본격적으로 산란에 가담하게 되면 계란가격은 또다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격적인 나들이철로 접어들면서 행사객들에 소비증가를 기대를 하고는 있으나 유통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많은 탓에 얼마나 소진시킬 수 있는지가 큰 관건이다. 이제부터라도 산란계농가는 '나부터 먼저' 라는 의식 변화를 가지고 스스로 산란계 사육수수를 감축하고, 계란자조금 납부에 동참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여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우리 산란계 산업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달의 계란전망

이상목 차장
경영정책국





▶ 병아리 · 사료 · 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13	63,000	2,139	27.0	181.9	1,075	1,079
	2014	45,300	3,499	28.4	192.2	1,050	1,678
	2015	101,280	4,352	33.2	204.2	1,450	1,645
	2016	50,000	3,013	31.2	214.6	1,150	1,090
2	2013	74,880	633	25.6	155.4	1,075	1,088
	2014	5,160	3,842	24.7	168.5	1,050	1,474
	2015	69,000	3,350	30.5	178.6	1,379	1,711
3	2013	18,000	3,819	22.7	166.7	1,066	1,145
	2014	64,000	2,635	25.4	176.7	1,172	1,570
	2015	39,700	4,285	34.1	197.7	1,350	1,667
	2016						
4	2013	31,000	3,691	22.6	178.8	1,050	1,480
	2014	48,000	4,194	27.8	176.5	1,321	1,596
	2015	80,000	3,816	35.0	197.3	1,350	1,758
	2016						
5	2013	50,000	3,430	26.3	176.8	1,050	1,451
	2014	54,080	3,752	29.7	175.6	1,450	1,582
	2015	64,000	4,529	34.5	193.0	1,300	1,787
	2016						
6	2013	49,920	2,832	29.2	151.0	1,050	1,282
	2014	48,500	3,273	28.7	163.8	1,450	1,650
	2015	24,000	4,298	35.6	192.4	1,278	1,646
	2016						

7	2013	79,500	3,453	29.3	166.9	1,050	1,432
	2014	52,500	4,258	31.4	172.0	1,450	1,650
	2015	123,840	4,087	36.5	195.0	1,250	1,600
	2016						
8	2013	53,000	3,205	27.3	162.6	1,050	1,478
	2014	45,000	3,418	29.9	174.4	1,450	1,679
	2015	70,394	4,083	34.1	187.1	1,250	1,600
	2016						
9	2013	11,000	3,225	27.7	167.9	1,050	1,633
	2014	44,960	3,460	31.7	174.6	1,450	1,691
	2015	39,000	3,481	33.9	207.6	1,250	1,695
	2016						
10	2013	20,000	3,442	31.2	178.4	1,050	1,557
	2014	22,880	3,700	33.4	188.9	1,406	1,647
	2015	64,500	3,387	34.8	209.4	1,250	1,587
	2016						
11	2013	45,760	3,128	28.9	177.3	1,050	1,640
	2014	76,400	3,754	30.3	182.7	1,450	1,804
	2015	63,000	3,451	34.1	201.8	1,250	1,551
	2016						
12	2013	59,200	3,203	29.9	188.8	1,050	1,590
	2014	29,600	4,536	34.9	208.1	1,450	1,692
	2015			35.5	225.2	1,150	1,101
	2016						
계	2013	554,960	36,200	327.6	2,052.5	1,056	1,405
	2014	536,380	44,321	356.3	2,154.0	1,346	1,643
	2015			411.7	2,389.4	1,292	1,612
	2016						

※2009년 11, 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